

곡성군, 관광업체 전남 관광진흥기금 융자 실시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기금 운용 폭 넓혀 최대 2억까지 금리 1% 시설·운영 자금 지원

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를 위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운영자금까지 확대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경

쟁력 제고와 진흥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은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시설자금만 지원해왔다. 지원대상도 관광숙박업, 관광펜션

업, 야영장업,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관광케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포함) 내 주차 시설 신축 등으로 한정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기금 운용의 폭을 넓혔다. 일단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국내여행업도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또한 운영자금도 업종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졌다. 대출

금리는 1%(3개월 변동금리)로 시설자금의 경우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은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금리는 같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가 해당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 취급 은행(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은행)과 대출 상담, 군의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31일까지 관광과에 우편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곡성군 공고 제 2021-492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알찬 교육부터 작목 체험까지 “장성 초보귀농인 배움 열정 뜨겁네”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개강

장성군이 초보 농업인을 위해 마련한 ‘엘로우시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교육이 인기가 높다. 군에 따르면, 접수 시작 3일 만에 상반기 교육 정원 40명을 모두 채울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엘로우시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은 신규 귀농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교양교육이다. 귀농을 위한 마음가짐부터 본격적인 농업 창업에 이르기까지, 초보 농업인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귀농공간과정’이 눈길을 끈다. 교육생들이 재배 체험을 희망하는 작목을 신청하면, 장성군은 희망자가 5명 이상 모인 작목에 대해 5~6회 가량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재배를 희망하는 품종을 미리 걸러볼 수 있어, 추후 작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엘로우시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성군은 재전입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과 귀농인-원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농·귀촌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황금나침반’, 우수 창업농 육성사업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고등학생 대상 담양산(産) 가공식품 간식 지원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담양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담양산(産) 가공식품 간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고등학생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가공식품 제조업체 지원을 통해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지난 2월까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선호품목 조사를 진행했으며 3월 하순부터 8월까지 담양고, 창평고, 한빛고, 담양공고, 송강고 등 관내 5개 고등학교 1,248명의 학생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

식품을 간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남승 친환경유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즉석 식품이나 과자 등의 간식을 대신해 관내 우수 식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지역 소재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작품국화’ 교육 개강

재배교실 40명·연구회원 24명...국화향연 행사장서 해설사 활약

화순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작품국화 관련 교육 과정 2개가 동시에 개강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과 오후 나눠서 열렸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진행됐다.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육에는 작품국화 재배교실 교육생 40명, 국화작품 연구회원 24명이 참여한다. 9개월 동안 2-3주에 한 번씩 작품국화 재배에 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총 12차례 이뤄진다. 이번 교육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국화분

재 모종을 재배해왔고, 개강 첫날 교육생들에게 450여 주를 분양했다. 교육기간 교육생들은 분양받은 모종을 키우고 올해 화순 국화향연에 출품하게 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작품국화는 행사장 ‘분재전시관’에 전시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더 쾌적한 국화 재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방기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며 “교육생들이 고품질의 작품국화를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행복과 치유의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악기(보유) 연주자 대상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나주시는 시민의 문화생활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오케스트라 공연프로젝트’ 단원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오케스트라 공연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생활

문화콘텐츠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지난 2년 간 추진해왔다. 악기 연주와 음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작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정기공연으로 감동과 치유,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의 문화행복지수를 높여왔다. 기동취재본부

단원 모집 분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금관악기 등 오케스트라 합주가 가능한 악기 보유 연주자(성인 한정)다.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 및 악기 연주 영상을 담당자 이메일(pse626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내달 8일 누리집에 공고되며 단원들은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과 정기공연(2회) 무대에 설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선율로 행복과 치유를 선물해줄 시민오케스트라 주인공을 찾는다”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행복도시 조성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원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문화예술과(339-4604)로 하면된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박차

구례군은 기후변화, 농촌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수 연구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농업농촌 활력증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간의 집합·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현장중심

농업기술 교육 및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틈새 소득작목과 집중육성 품목 중심으로 작목별 재배현황, 면적, 지역의 특성과 농업기반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할 8개 품목을 선정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